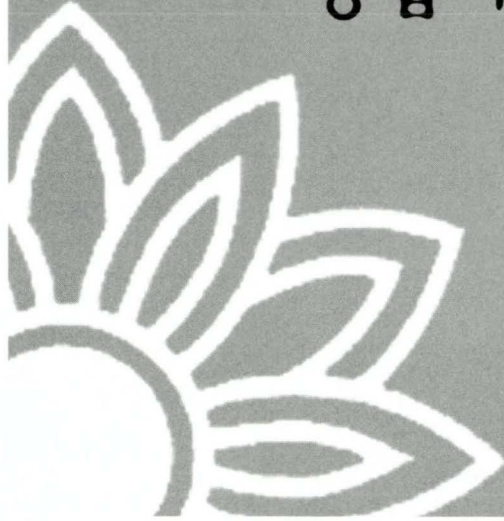


제 1 장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 건국





# 후삼국의 성립과 고려 건국

이재범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 1. 신라하대의 혼란과 호족

9세기 말이 되면 신라의 혼란이 점차 가중되어 간다. 중앙정부에서는 진골 귀족들의 왕위쟁탈전이 치열해졌다. 이른바 '96각간의 난'으로 일컬어지는 정쟁은 중앙집권적 권력체제를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신라 귀족들의 정쟁에 소모되는 비용은 하층민들에게서 가렴주구되었다. 따라서 하층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한층 심해졌다.

이에 비하여 대귀족들의 경제생활은 규모가 커졌다. 대농장, 수천 명의 사병과 노비, 대규모의 사냥터와 방목지를 소유한 자도 나타났다. 예컨대 879년에 지증(智證)은 자기 소유 농장 500결을 사원에 기증하고 있다.

한편 왕실과 귀족들의 비호를 받아 성장한 불교사원들도 많은 노비와 토지는 물론 승병들을 소유하였다. 귀족관료들과 불교사원들은 신라왕조를 위협하는 큰 세력으로 커나갔다.

상류층의 생활은 사치가 극에 달하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층민들로부터 수탈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삼국사기』에 진성여왕을 비롯한 왕들과 통치배들이 부패타락한 생활로 말미암아 통치체제가 문란해졌다고 기록된 것은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은 않다.

중앙의 가렴주구와 통치기능 마비현상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백성들은 토지를 이



탈하기 시작하였다. 농토는 황폐화되고 관개시설도 파괴되어 갔다. 연이은 가뭄과 흉수로 농업 생산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신들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어떤 가난한 처녀는 품을 팔아 목숨을 이어왔으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쌀 30섬에 자신을 팔아 노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 조정이 강제로 조세를 징수하자 농민들은 마침내 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주목할 만한 농민반란은 사벌주(沙伐州: 상주)의 원종(元宗)·애노(哀奴)의 난이었다. 그 정도가 매우 치열해서 관군이 감히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할 정도였다. 이 난을 계기로 봉기한 민란은 890년대에만 20여 회가 기록상으로 찾아진다. 『삼국사기』에 군도(群盜)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민란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가운데서도 규모가 컸던 것은 북원(北原: 원주)의 양길(梁吉)과 서남지방에서 일어난 적고적(赤袴賊: 붉은 바지적)을 꼽을 수 있다. 적고적은 신라왕조의 전복을 목적으로 섬진강 동쪽에서 낙동강을 건너 수도인 경주를 향해 진격하였다. 그들은 많은 관청과 귀족들의 집, 사원 등을 습격·소탕하고 수도 서쪽 모량리까지 진출하였다.

신라말 나타난 민란의 주동자들은 일정한 재지세력을 기반으로 신라왕실로부터 반독립적인 존재들로 이들은 실질적인 지방지배자들이었다. 이들을 호족으로 부르는데, 앞서 말한 양길과 같은 존재는 호족의 대표적인 존재이다. 양길은 북원과 국원까지 장악하였던 인물로 당시 중부의 제일가는 세력이었다. 훗날 궁예가 양길에게 투탁하는 것으로 볼 때 그 세력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죽주의 기훤(箕萱) 부대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던 집단이다. 이는 궁예가 처음 기훤을 택했던 것으로 보아 그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호족들은 규모에 따라 대호족과 소호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호족은 여러 소호족들의 대표격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호족은 발생 조건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중앙에서 몰락한 귀족들이 낙향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명주의 김씨가 대표적이다. 김순식(金順息)으로 대표되는 명주호족 김씨의 선대는 김주원(金周元)이다. 김주원은 김양상(金良相: 선덕왕)과의 왕위쟁탈전에서 밀려 명주로 낙향하여 이 지역에서 일정한 세력기반을 다졌다. 뒷날 그를 명주군왕(溟州郡王)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이 일대에서의 그의 세력을 짐작할 만하다.

둘째, 군진(軍鎭) 세력으로 성장한 경우이다. 군진은 군사와 행정을 겸하는 특수 지방행정기구로 군진에 파견된 장수가 중앙정권의 해이를 틈타 군사적 기반을 배경



으로 세력가가 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견훤(甄萱)인데, 그는 처음 신라의 군관으로 서남부지방의 장수였으나, 군사력을 배경으로 후백제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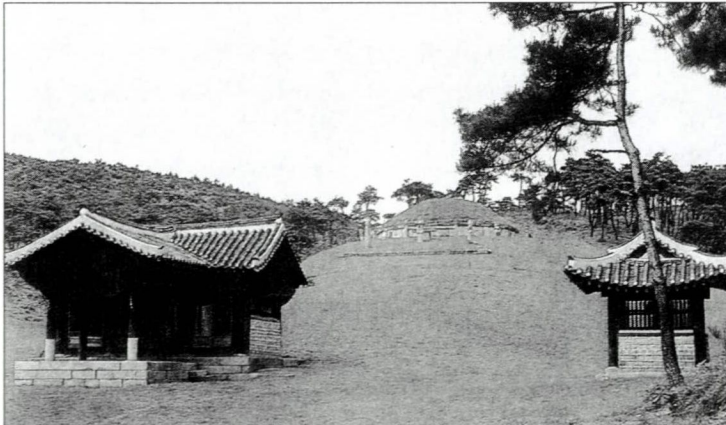
셋째, 촌주출신들이 있다. 촌주들은 자연촌을 장악하는 혈연적인 수장과 유사한 성격이었는데, 중앙정부로부터 가림주구가 심해지자 스스로 무장화하여 촌을 단위로 독립해 나갔다. 대체로 소호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상업세력으로 성장한 호족들이 있다. 왕건이 대표적인 예인데, 그의 가문은 상당히 오랜 기간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부를 축적하여 이를 근거로 송악 일대에서 호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강주의 왕봉규(王逢規)처럼 중국에 직접 사신을 보낸 해상호족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군도세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자기들의 근거지를 떠나 돌아다니던 유랑의 무리들이 규합하여 반사회적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궁예(弓裔)가 대표적이다. 궁예는 처음 왕실에서 태어났으나 출생과 동시에 버림을 받아 떠돌이 생활을 했다. 그러한 과정에 그의 주위에는 많은 유랑의 무리들이 합세하여 지역을 횡행하며 도적질을 일삼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차츰 세력이 커져 고려(마진摩震, 태봉泰封)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

일정한 세력권을 형성한 호족들은 신라 중앙권력으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였다. 이들은 지역정서에 호소하여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세력을 형성해 나갔다. 그리하여 신라하대는 중앙집권이 붕괴되고 지방분권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옹호하던 화엄종을 대표로 하는 교종계열의 불교 사상도 변화가 초래되었다. 선종 계열의 수행방법이 호족들에게 환영을 받

현릉(고려 태조의 능)



게 되었던 것이다. 교종은 경전의 내용 습득이 수행의 기본이었으므로 중앙 지식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으나, 무식한 지방민들에게는 경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선종은 불립문자를 주장하며 자신의 수행방법이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였으므로 경전을 읽을 수 없는 지방 하층민들에게도 환영을 받게 되었다. 호족들의 등장은 비단 정치계뿐만 아니라 사상계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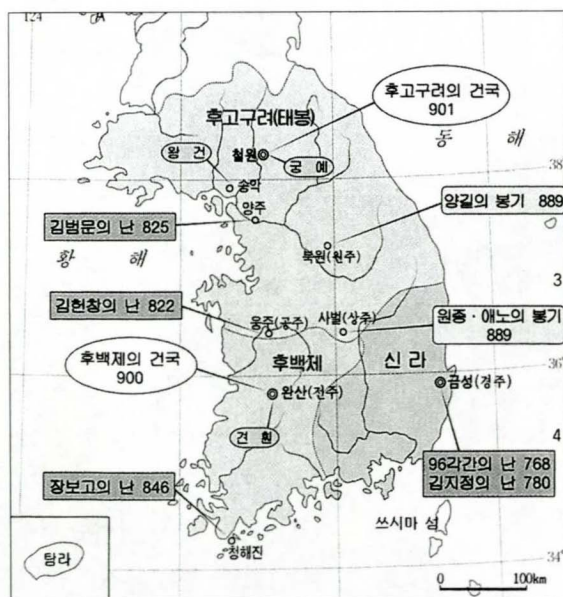
## 2. 후삼국의 성립

호족들의 성장은 점차 소수의 대호족들의 등장을 초래했고, 그 가운데서도 거대한 호족들은 일정한 국가체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신라하대가 되면 후백제와 후고구려와 같은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 두 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신라하대는 다시 신라와 고구려, 백제가 다시 정립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이를 후삼국이라고 한다.

후삼국 중 세력이 가장 강성했던 국가체는 궁예정권이었다. 궁예는 국호를 처음 고려라 했다가 이어서 태봉·마진으로 고쳤음은 앞에서 명기한 바와 같다.

궁예는 891년부터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여 처음 북원의 세력이 양길에게 투탁한다. 그리고 양길로부터 병력을 얻어 석남사에 재정비를 한 뒤 북원 동쪽 지역들을 점령해 나간다. 이어 명주일대로 진출하면서부터 세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된다. 마침내 894년에는 신라 9주의 하나였던 명주를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때의 무리가 『삼국사기』에 따르면 3,5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궁예는 이 세력을 14대로 편제를 나누고 자기 세력이 강화되자 양길로부터 독립을 피하고 있다. 그리하여 895년부터는 독자적인 정복활동을 전개하여 저족(猪足; 인제)·생천(牲川; 화천)·부약(夫若; 김화)·금성(金城; 김화)·철원 등을 점령하였고, 계속하여 패서지방(溟西地方; 황해도)까지 진출하여 마침내 한강과 임진강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다.

신라말의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895년에 궁예는 송악군(松岳郡: 개성)까지 진출하여, 왕건의 아버지이며 송악의 호족세력인 용건(龍建: 왕룡王隆)과 제휴를 하게 된다. 용건은 자신의 세력이 미약하다고 생각하여 궁예에게 송악을 내주는 대신 왕건을 태수(太守)로 임명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궁예는 왕건을 송악 성주로 임명하고 발어참성(渤禦塹城)을 쌓게 하였는데, 이때 왕건의 나이 19세였다.

한편 궁예는 계속하여 영토를 확장하여 갔다. 더욱이 해상 호족세력인 개성왕씨가와의 결합은 자신의 해상으로의 진출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897년에는 임진강 하구의 인물현(仁物縣: 개성)이 스스로 항복하였고 898년에는 패서도, 한산주 관내의 30여 개 성을 빼앗았다. 그리하여 궁예는 한강 하류지방과 예성강 서부의 황해도 지방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그는 수운을 이용한 세력 확장을 위하여 해상교통에 유리한 송악으로 898년 중심지를 옮겼다. 그리고 이 지역 지리에 밝고 민심을 얻고 있는 왕건을 이용하여 경기도의 공암(孔巖: 현 서울 강서구)·검포(黔浦: 김포)·혈구(穴口: 강화)·양주(楊州)·견주(見州: 양주) 등 한강 하류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갔다.

궁예는 자신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양길과 두 차례의 전투를 하였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궁예는 확실하게 국원(國原: 충주)·북원 일대의 한강유역까지도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900년에는 왕건을 시켜 광주(廣州)·충주·청주 등 3개의 주와 당성(唐城: 화성)·괴양(槐陽: 괴산) 등의 군현을 정벌하였다. 이때 국원·청주·괴양 등지의 호족들도 귀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세력이 확대된 궁예는 901년 왕이 되고 국호를 '고려'라 하였다. 궁예가 국호를 고려로 채택한 것은 자신의 점령지역의 대부분이 고려(고구려)의 고토이므로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영하고자 함이었다. 그 뒤 궁예의 세력은 남으로는 공주, 북으로는 대동강에 이르러 후삼국 가운데 최대의 판도를 과시하는 강국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궁예는 후백제의 배후를 공격하여 협공을 시도하려는 의도에서 나주에 교두보를 구축하였다. 나주는 후백제 세력권이었으나, 900년 견훤이 수도를 무진주(武珍州: 광주光州)에서 완산주(完山州: 전주)로 옮긴 후 방어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한 편이었다. 이 기회를 틈타 궁예는 왕건으로 하여금 이 일대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왕건은 903년 3월 수군을 거느리고 금성군(錦城郡)을 함락하고 이어 주변의 10여 군·현을 장악하였다. 그리고 금성군을 나주로 고치고 함께 갔던 군대를 주둔시키고 개선하였다. 이러한 궁예의 세력 확장은 인근 호족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904년 패서도(溟西道)의 10여 주·현이 궁예에게 귀부함으로써 오늘

날의 황해도 서부해안 연안까지가 모두 궁예의 세력권 아래 있게 되었다. 905년에 궁예는 이 일대에 패서 13진을 설치하였다. 그러자 평양과 증성(甑城; 증산)의 호족들이 귀부하였다.

이처럼 궁예의 세력이 고구려 고토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되자 궁예는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바꾸었다. 특정지역의 의미가 아닌 추상적인 통일국가의 의미로 국호를 갱신한 것이다. 그리고 911년에 다시 태봉(泰封)으로 바꾸었다. 한편 황제국에서만 제정할 수 있다는 연호도 제정하였는데, 처음 무태(武泰)로 하였으나 다시 성책(聖冊)·수덕만세(水德萬歲)·정개(政開) 등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내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치기구들을 정비하였다. 마진국의 통치기구로서는 최고합의기관인 광평성(廣評省)과 그 밑에 군사행정을 맡은 병부(兵部), 사법검찰을 맡은 의형대(義刑臺), 조세 및 국가재정 담당의 대룡부(大龍部), 외교 및 국가의식을 담당한 수춘부(壽春部; 봉빈부奉賓部), 학문을 담당하였던 원봉성(元鳳省), 수공업·토목공사를 담당한 물장성(物藏省) 등을 두었다. 그 밖에도 외국어를 가르쳤던 사대(史臺) 등을 두었다. 궁예정권 통치기구의 특색은 신라때보다 광범하였으며, 명칭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것이 많다는 점이다.

궁예는 관직과 관등도 정하였다. 특히 두 번에 걸쳐 단행된 9단계의 관등은 골품제(骨品制)를 청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궁예정권의 개혁적 성격의 일면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궁예는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다. 송악군은 고구려의 대표적 호족인 왕건의 본거지로 쉽게 개혁적 성향의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천도와 함께 궁예는 청주의 주민 1,000호를 철원으로 이주시켜 자기 기반을 확립하여 왕권을 강화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였다.

궁예의 대동방국의 이상 추구와 강력한 왕권중심의 중앙집권국가의 수립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대동방국의 구현에 대한 고구려계 유민의 반발과 중앙집권에 대한 지방 호족들의 불만이 커져갔다. 게다가 신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비용의 징수와 무리한 노역은 상하로부터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고 민생은 점차 위협을 받았다. 이처럼 내부의 불만이 축적되어 가는 도중에도 궁예의 영토는 계속 확장되었다. 905년 8월 죽령이북의 지역을 차지하였고, 상주 사화진에서 견훤의 군대를 몰아냈다. 그리하여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도 북부지역까지 세력권이 확대되었다.

한편 궁예의 정책에 대한 반대세력들의 불만도 점차 커져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상을 보였다. 『삼국사기』에 궁예가 “죄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아첨하는 자들만 좋아하였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궁예



는 신라에 대해서 '멸도(滅都)'라고 부르면서 강경한 정복정책을 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예와 왕건과도 관계가 점차 악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왕건은 자신의 신변을 염려하여 원지에서 정벌에 종사하기를 청하기도 했다. 왕건은 이른바 '덕진포(德津浦; 나주 전투)에서 견훤의 수군을 대파하여 이 지역의 민심을 얻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확보하면서 반궁예 전선의 거점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반궁예 정세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궁예는 자신의 왕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였다. 궁예는 '미륵불(彌勒佛)'로 자처하며 머리에 금책(金幘)을 쓰고 방포(方袍)를 입었다. 맏아들을 청광보살(靑光菩薩), 막내아들을 신광보살(神光菩薩)이라 하였다. 또한 바깥에 나갈 때면 늘 흰말을 타고 비단으로 말의 갈기와 꼬리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소년·소녀들로 하여금 일산과 향과 꽃을 받쳐들고 인도하게 하였으며, 비구니 200명이 범패(梵唄)를 부르면서 뒤따르게 하였다.

궁예는 불경도 저술하였다. 그는 불경 20여 권을 썼다고 하는데, 현재 전해지는 내용은 없다. 단지 그 내용이 '요사스럽고 허황'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었다는 후대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불교계의 통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 같다. 궁예는 자신의 불경을 신하들앞에서 강론하면서 이를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형하였다. 승려 석총(釋聰)이 궁예의 불경을 요사스럽다고 말하여 죽음을 당했고, 형미(迥微) 또한 죽음을 당하였다.

덕진포 싸움 후 서남 해안지역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왕건은 시중에 올라 궁예의 신임이 두터워졌으나, 한편으로는 견제도 더 심해졌다. 그러나 마침내 왕건의 입지가 확실해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른바 아지태(阿志泰) 사건이 그것이다. 아지태는 청주사람인데 같은 청주인 입전(笠全)·신방(辛方)·관서(寬舒) 등을 참소하였다. 수년 동안이나 판결이 나지 않았던 사건을 왕건이 결론지어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었다고 한다. 궁예와 왕건과의 대립양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아지태 사건의 해결 이후 왕건의 궁예정권 내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후 왕건은 나주일대에서 세력을 더욱 공고히 하였고, 점차 궁예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준비를 다져갔다.

한편 상주 가은현 출신으로 신라의 군인이었던 견훤은 후백제를 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지역 호족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서남해안을 지키던 인물이었다. 그는 892년 약 5,000여 무리를 모아 무진주를 중심으로 국가체를 형성하였다. 이어 북쪽으로 진격하여 완산주로 도읍을 옮기고 오늘의 공주이남 충청도일대와 전라도

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견훤은 무진주 점령 직후시기부터 '신라서면도통지휘병마제치(新羅西面都統指揮兵馬制置)'라고 자칭하였다. 그 후 900년에 후백제 창건을 선포한 다음 왕이 되었다. 그가 후백제로 국호를 채택한 이유는 자신의 점령지역이 백제의 고도이므로 백제 유민들의 복고적 정서를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후백제는 전라도지방을 근거지로 하여 대야성(大耶城; 합천)을 공격하였으나 완강한 방어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군대를 돌려 금성군 남쪽 변방지역의 부락들을 약탈하였다. 907년에는 일선군(一善郡, 선산) 이남의 10개 성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후백제의 세력범위는 짧은 기간에 오늘의 전라도 대부분과 충청도의 공주 이남지역, 경상도 일부지역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후백제는 궁예의 세력권에 비하면 그 판도의 규모도 작았고, 영향력 또한 미약하였다.

궁예와 견훤의 국가 건립으로 10세기 초의 형세는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서게 되어 다시 삼국이 정립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밖의 지역은 '성주'·'장군'·'군왕'이라고 자칭하는 여러 세력들로 분립하여 혼란상을 연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9세기 말~10세기 초에 신라는 3개의 나라로 나뉘고 중앙집권적인 권력이 지방에까지 침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 3. 왕건의 등장과 고려의 재건

왕건은 『고려사』·『제왕운기』·『개성왕씨계보』 등에 의하면 고구려유민 출신으로 파악된다. 또한 왕건의 선대들은 작제건(作帝建) 설화 등을 근거로 하여 해상활동을 통하여 세력을 형성하여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왕건의 조상은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재부를 축적하여 송악일대의 호족으로 성장하였던 것 같다. 특히 왕건의 아버지 용건 대가 되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건의 조상은 처음에 평민 신분층이었으나 재부의 힘을 바탕으로 개성과 그 일대에서 큰 세력을 가진 지방토호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왕건세력은 896년 궁예가 강대한 세력을 이끌고 송악으로 오자 일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때 용건은 궁예에게 조선(朝鮮)·숙신(肅愼)·변한(弁韓)지방에서 왕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의 아들 왕건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궁예에 의하여 왕건은 송악태수에 임명되고 성을 쌓게 된다.



왕건은 궁예의 휘하에서 성장하였으나, 탁월한 처세술로 궁예를 전복하게 된다. 왕건은 궁예의 휘하라고 생각되는 상당한 지역을 확보하였다. 지금의 양주 등 한강 일대를 장악하여 궁예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여 주었다. 그러나 궁예의 무리한 왕권강화정책에 불만을 갖게 되어 계획되었던 쿠데타를 통하여 정권을 획득하게 된다.

정권을 획득한 왕건은 우선 국내의 안정을 찾기 위하여 내치에 힘쓰게 된다. 그의 정책은 크게 중폐비사(重幣卑辭)와 취민유도(取民有度)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폐비사는 상대방에 대한 대우는 크게 해주고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로 정치적으로 호족을 연합해가는 과정에서 수행되었다. 취민유도는 백성에 대한 안정책으로 백성을 모으는 데 도량을 크게 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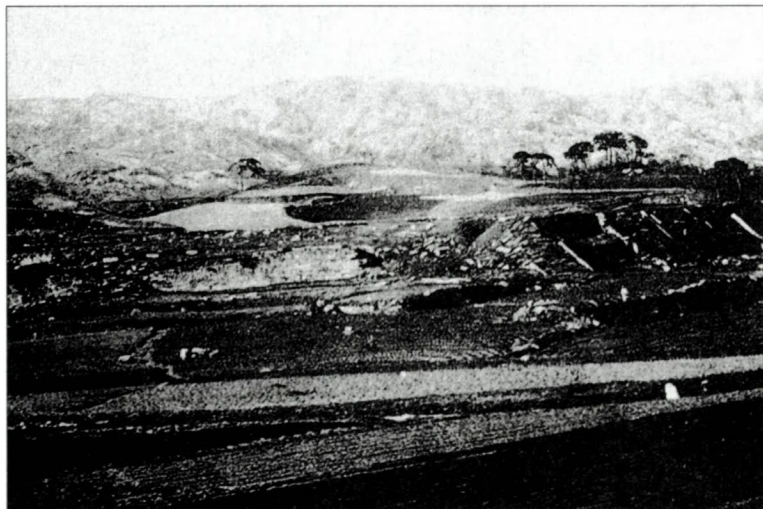
중폐비사에 해당되는 것은 그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왕건의 통치에서 이러한 예는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특히 그의 호족정책·사성정책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여러 호족들을 자신의 가족과 흡사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918년 6월 15일 왕건은 포정전(布政殿)에서 정식으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 연호를 천수(天授)라 하였다. 천수라는 의미는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의미로서 자신들의 정치전복의 당위성을 찾고 명분을 획득하자는데 있었다. 건국을 선포한 왕건은 통치 기간(基幹)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치체제 정비에 나섰다. 먼저 왕권의 확립을 위하여 중앙통치기구를 정비하였다. 왕건은 집권 6일만에 중앙정부 관리들을 임명하였다. 이때 임명한 관직은 새로운 체계가 아니라 궁예때의 관직을 답습한

것이었지만 용의주도하게 관부의 정원을 빠짐없이 채워 새로운 기반 확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관직에 대한 임용도 일단 자신의 신하들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직에 요인이 임명되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자 왕건은 바로 공신을 책봉하였다. 그해 7월 왕건은 공신을 3개 부류로 나누어 홍유

고려 궁궐 터



(洪儒)·배현경(裵玄慶)·신숭겸(申崇謙)·복지겸(卜智謙) 등을 일등공신에 봉하고, 능식(能寔)·권신(權愼)·염상(廉湘)·김락(金樂)·연주(連珠)·마난(麻煖) 등을 2등공신에, 그리고 3등공신은 2,000여 명을 책봉하여 국가의 공권력 안에 들어오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2,000명 이상 되는 3등공신은 왕건의 중폐비사의 범위를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자신의 정권획득에 공이 있는 사람 거의 전부를 공신의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왕건은 당시 현안인 후삼국 통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여기에도 일정하게 중폐비사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왕건은 먼저 쿠데타 당시 태봉의 세력권에서 이탈해 나갔던 세력들을 규합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왕건은 사성(賜姓)을 실시하였다. 왕건은 오랫동안 귀부하지 않던 김순식에게 왕씨 성을 내렸다. 한가족과 같은 의미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였던 것이다.

중폐비사의 원칙은 발해귀족에 대한 처우에서도 보인다. 926년에 멸망하여 남하하기 시작한 발해유민들에 대해서도 왕건은 유연한 정책을 폈다. 그는 발해유민을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유연하게 포섭하였다. 당시 발해유민의 수는 많게는 수만 호가 일시에 남하한 적도 있어서 왕건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왕건의 유연한 대발해유민정책은 마침내 발해유민의 자진 귀부를 받기에 이른다. 934년 왕건은 투항한 발해유민들의 수장이었던 대광현(大光顯)에게 왕씨 성을 주었다. 또한 발해인들이 자신들의 종묘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유민들에게 우대정책을 취하여 관작을 내리고 전택을 하사하였다. 발해군인들은 직접 군대에 편입시키거나 군호로 등록하여 군사복무의 의무를 지게 하였다. 일반인들에게는 거주지를 주고 백주(白州) 일대에 위치하여 살게 하였다.

고려는 국토통일을 위하여 북방의 고구려·발해 옛 땅을 되찾으면서 남방의 후백제와 신라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여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때로 무력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지만 왕건은 중폐비사라는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왕건은 918년 8월에 귀부해 온 벽진장군 이충언(李兪彦)을 설득하여 본주장군으로 임명하고 229호를 녹읍으로, 쌀 2,200섬과 소금 1,785섬을 예물로 주고 있다. 927년 8월에도 고사갈이(高思葛伊; 문경) 성주 흥달(興達)이 귀부하자 그의 세 아들에게 청주(淸州; 금릉)·진주(珍州; 금산)·한수(寒水)·장천(長淺; 장단) 지방을 녹읍으로 주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적지 않아서 일일이 예거하기가 어렵지만, 특히 김순식에게는 앞서 말한 사성 이외에 대광(大匡; 2등급)의 관등과 함께 그의 아들 장명(長命)에게는 원



보(元甫)의 관등과 함께 염(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켰다. 이처럼 지방 유력자에게는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과 차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광주호족 왕규(王規) 등은 대표적으로 왕실혼을 했던 호족이다. 『고려사』에는 왕건의 후비가 29명 등재되어 있다. 그들은 대체로 지방의 유력 문벌출신으로 왕건이 혼인관계를 통해 많은 지방세력들을 포섭하여 정치적 기반을 닦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왕건은 성주와 장군들이 귀부해 올 때는 그 지위에 따라 의식을 갖추어 맞이하게 하였다. 918년 9월 상주의 아자개(阿慈介)가 귀부해 왔을 때에는 왕건이 의식을 갖추어 그를 맞이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고려는 930년대 초까지 지방의 성주·장군들을 거의 포섭할 수 있었다.

한편 취민유도에 해당하는 백성들에 대한 위무 및 민생안정 정책으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단지 조세의 면과 신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먼저 백성들에게는 조세를 절감하여 주었다. 궁예 집권당시 조세가 1경(약 1결)에 6섬에 달하던 것을 918년 7월 '10분의 1세'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왕건이 백성정착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919년 8월 왕건은 오산성을 예산현으로 고치고 유망하던 500여 호의 주민들을 이곳에 집결시켜 농사를 짓도록 하였다. 922년에는 아선성(牙善城; 증산龜山)을 빈민들의 주거지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유망민들의 생활을 정착시키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본래의 신분이 양인이었던 사람들이 노비로 된 경우 이들을 다시 양인화하기도 하였다. 918년 8월 그들 가운데 일부인 1,000명의 신분을 바꾸어 주기도 하였다.

한편 귀족들의 처우를 높게 하여 이탈을 방지하려 한 것도 왕건의 일종의 취민유도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왕건은 종실·관리·공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처우를 보장하였던 것 같다.

918년 6월 왕건은 심곡사(審穀使)를 파견하여 궁예정권의 모든 내장(內莊; 왕실 직속 농장)들과 동궁식읍(東宮食邑; 왕세자궁에 속한 식읍)의 곡식들을 조사하게 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것을 기반으로 종실 등 자신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왕건은 관리들에게 녹봉 대신 일정한 토지의 수조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녹읍제·식읍제 등을 시행하였다. 식읍의 예로는 935년 6월에 투항해 온 후백제왕 견훤에게 '상부(尙父)'의 칭호를 주고 위계를 백관 위에 놓았으며, 양주를 식읍으로 주었다. 그해 10월에는 투항해온 신라 경순왕에게 경주

를 식읍으로 주었는데, 이때 식읍의 호수는 8,000호에 이르러 그 실제 여부가 의문 시된다는 주장도 있다.

후삼국 통일 후 왕건은 전국의 토지를 역분전제로 전환하였다. 940년 국왕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관료·군인들에게 관등과 관계 없이 수조지를 나누어주는 제도였다. 대광 박수경에게 가장 많은 규모의 200결의 역분전을 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왕건의 정책은 호족들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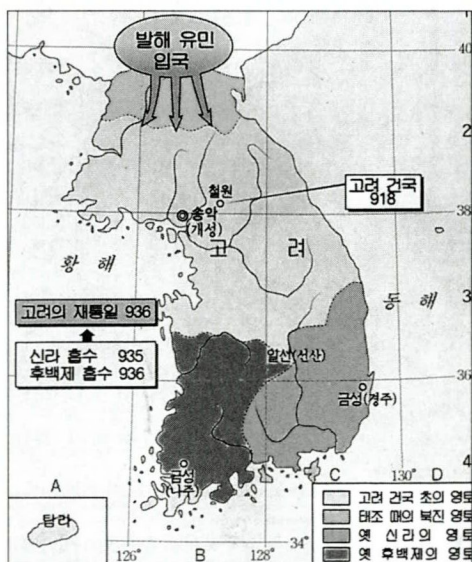
## 4. 후삼국의 통일

호족·사원 및 백성들을 인정하고 베푸는 정책은 신라가 후백제를 등지고 고려로 귀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한때는 고려와 후백제는 대치관계에 있기도 했고, 백제가 우위를 점할 때도 있었으나, 마침내 신라는 고려에 귀부한다.

신라의 고려 귀부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왕건의 신라에 대한 관용적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920년 10월 후백제군이 대량(大良)과 구사(仇史) 두 군을 침입해 오자 고려는 신라의 요청에 따라 군대를 보내어 후백제군을 물리쳤다. 925년 10월에도 고을부(高鬱府; 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왕건에게 투항해오자 그 고을이 신라 수도에 가깝게 있다고 하여 몇 사람의 관리들만 남도록 하고 다 돌려보내기도 하는 등의 우호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신라는 고려를 의지하는 경향이 강해져 갔다.

그러나 후백제는 그러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견훤의 경애왕 살해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견훤은 927년 9월 고려의 근품성(近品城)을 공격하고 계속하여 신라의 고을부를 습격하는 등 공격적이었다. 특히 포석정 사건은 신라가 후백제를 멀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다. 이때 신라왕의 요청을 받은 왕건은 공훤(公萱) 등에게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견훤은 포석정에서 연회 중이던 경애왕의 일행을 급습하여 왕을 자진하게 하고 함께 있던 사람들을 능욕하였다. 게다가 견훤은 경애왕을 폐위시키고 새 왕으로 그의 외사촌 아우 김부를 왕(경순왕)으로 내세웠다. 이

고려초기의 한반도 정세





사건은 신라인들로부터 후백제를 더욱 배척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 무렵 왕건은 견훤에 비하여 군사적 열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왕건이 직접 정예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던 공산 동수 전투에서 고려군은 후백제군의 매복에 걸려 크게 패하였다. 이 전투는 고려의 장군 신승겸과 김락이 전사하였을 정도로 치열하였다. 그러나 그 뒤 왕건은 930년 병산전투에서 승기를 잡고, 931년 신라 왕경 방문을 통하여 신라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하게 하였다. 약간의 과장은 있겠지만 당시 왕건의 신라 방문에 대하여 신라사람들이 “전날(927년)에 견훤이 왔을 때에는 마치 범이나 이리떼를 만난 것 같았는데, 오늘 왕공(왕건)이 온 것을 보니 부모를 보는 것만 같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했던 전략적·정책적 원인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후백제는 경애왕을 죽이는 등 난폭한 행위를 한 것에서 신라의 귀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형성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백제의 내분으로 말미암아 견훤이 고려로 귀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935년 3월 왕위계승에 불만을 품은 장남 신검(神劍)이 견훤을 금산사(金山寺)에 유폐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견훤은 몇 달 뒤인 6월에 탈출하여 고려의 영역인 나주로 와서 투항하였다. 왕건은 장군 유검필(庾黔弼) 등을 시켜 배 40여 척을 가지고 바다길로 가서 견훤을 맞게 하였다. 왕건은 견훤이 개경에 들어오자 자기가 거처 하던 남궁을 내주고 그에게 백관 위에 가장 높은 품계를 주고 노비 각 40명과 말 10필을 주었다.

이 사건 이후 신라 경순왕도 고려에 투항할 것을 의논하고 마침내 935년 10월 시랑 김봉휴(金封休)를 시켜 항복의 뜻을 전하였다. 왕건은 제의를 승낙하고 혼인관계를 약속하였다. 11월에 대상 왕철(王鐵) 등을 보내어 신라왕을 영접하였다. 경순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개경으로 향하였다. 왕의 뒤를 따르는 행렬이 30리에 걸쳤다고 한다. 왕건은 자신의 딸 낙랑공주를 경순왕과 혼인시켰다.

12월 왕건은 천덕전(天德殿)에서 신라왕의 귀부를 확인하고, 정승에 임명하였다. 그를 따라 온 사람들에게도 토지와 녹봉을 주었다. 그리고 경주를 경순왕의 식읍으로 삼고, 경순왕을 사심관에 임명하였다. 이렇게 하여 신라의 천년 사직은 고려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발해와 신라의 세력을 흡수한 뒤 왕건은 마침내 후백제에 대한 정벌을 시작했다. 더욱이 후백제의 정세가 고려에 더욱 유리하게 돌아갔다. 936년 2월 견훤의 고려 내투에 이어 견훤의 사위 박영규(朴英規)도 내투하였다. 6월이 되자 견훤이 왕건에게 후백제 공격을 재촉하기에 이르렀다. 왕건은 먼저 6월에 태자 무(혜종)와 장군 박술



희(朴述希)에게 보 · 기병 1만 명을 주어 천안부로 보내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건은 9월에 3군을 거느리고 천안부에 가서 선발대와 합류하였다.

고려와 후백제의 결전은 일선군(一善郡: 선산)에서 전개되었다. 선산으로 진군한 양군은 일리천(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이때 왕건의 부대병력은 모두 8만 7,500명으로 고려군의 총력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준비에 비하여 전투는 오래 가지 않았다. 『고려사』에 따르면 후백제군 내부에서 동요가 일어나 참전장군 가운데 일부가 전투도 하지 않고 투구와 창을 버리고 고려군에 있던 견훤에게 투항하였다고 한다. 왕건은 이 틈을 타 효과적인 예비대의 운용으로 후백제의 기선을 제압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후백제군 3,200명을 포로로 사로잡고 5,700명을 죽였다. 고려군은 나머지 후백제군을 황산군(黃山郡)까지 추격하여 전과를 올린 뒤 탄령을 넘어 마성에 주둔하였다. 이때 신검이 자신의 동생들인 용검 · 양검 등과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투항하였다.

왕건은 이들 포로들에 대해서도 관대하였다고 한다. 포로 3,200명을 전부 향리로 귀환시켰고, 신검에 대해서도 신하들의 부추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여 죽이지 않았다. 한편 후백제 멸망 후 견훤은 등장이 나서 수일만에 죽었다. 왕건은 후백제의 수도(전주)로 가서 백성들을 위무하였다. 이렇게 하여 후백제가 멸망하고 왕건에 의해 후삼국이 통일됨으로써 새로운 민족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 〈참고문헌〉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文景鉉, 1979, 「王建太祖의 民族再統一의 研究」, 『慶北史學』 1.

朴漢高, 1980, 「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政策」, 『史學志』 14.

鄭淸柱, 1986, 「弓裔와 豪族勢力」, 『全北史學』 10.

趙仁成, 1991, 「泰封의 弓裔政權研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文秀鎮, 1992, 「王建의 高麗建國과 後三國統一」, 『國史館論叢』 35.

李在範, 1995, 「高麗太祖 즉위시의 사회동향에 관한 일고찰」, 『申延澈教授停年紀念論叢』.

申虎澈, 2000, 「後三國時代 豪族과 國王」, 『震壇學報』 89.